총선 D-5 막판 판세가를 3대 변수

❶ 투표율 저조 예상… 유불리 엇갈려
❷ 부동층 되레 증가, '표심 잡기' 비상
❸ 돌발변수 말실수·행동 조심 또 조심

총선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직전인 2일까지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 광주·전남지역에선 무소속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3~4곳을 제외하곤 민주당의 압승,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한나라당의 과반 의석(150석) 확보는 거의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현재로선 선거일까지 특별한 변수도 없다는 것이 대체적 분석이다. 굳이 변수를 찾자면, 50%를 겨우 넘길 것으로 전망되는 낮은 투표율과 40%를 넘나드는 부동층의 향배, 예상치 못한 말실수나 민심을 흔들 수 있는 대형 사건·사고 등과 같은 '돌발변수' 정도가 꼽히고 있다.

◇**투표율**=선거 결과를 좌우할 최대 변수는 투표율이라는 것이 대체적 분석이다. 특히 이번 총선의 경우 투표율이 50% 안팎으로 극히 저조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정당별, 지역구별 유불리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 낮으면 한나라당이 유리할 것이라는 게 통설이다. 상대적으로 젊은층보다 고연령층의 투표율이 높고, 고연령층의 경우 보수성향 표심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거꾸로 투표율이 낮다는 것은 젊은층이 투표장에 별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고, 이는 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선거 상황이 지역구별로 다른 총선의 경우 이런 방정식이 정답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총선은 지역구별로 보편성이나 공통성보다는 개별성이 강한 선거라는 점에서다. 다만 전반적으로 투표율이 낮으면 확실한 조직표를 가진 후보가 유리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분석이다.

◇**부동층**=선거일이 다가오면 부동층이 줄어드는 것이 통상적 모습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의 경우 그동안 나온 조사결과 부동층이 오히려 느는 특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선거에 대한 관심이 실종됐고,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층 중 일부가 한나라당에서 이탈은 했지만 민주당 지지로도 돌아서지 않으면서 관망층이 증가했다는 등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부동층의 비율이 높다. 광주·전남의 경우 많게는 40%를 넘는다는 조사결과도 나와있다. 10명 중 4명의 유권자가 아직 표심을 정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이들 부동층을 어떤 정당, 어떤 후보가 잡는지가 경합지 승부의 관건이다.

◇**돌발변수**=지난 2일 불거진 정몽준 후보의 성희롱 파문처럼 선거 막판 예측할 수 없는 돌발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

2004년 17대 총선 당시에는 막판 '노인폄하' 발언이 나오면서 막판 선거구도가 크게 출렁거렸다. 별다른 상황 변화가 없는 한 앞으로 남은 변수라고는 말실수 같은 돌발변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각 정당과 후보들 모두 극도로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목포, 무안·신안 세계가 주목

美·日 외신 집중 취재…이희호 여사 또 방문

김대중 전 대통령(DJ)과 통합민주당과의 대결 구도가 펼쳐지고 있는 목포와 무안·신안 지역구 선거전이 국내를 넘어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3일 무소속 박지원 후보 측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아시히 신문은 4일 목포와 무안·신안의 선거전을 집중 취재한다.

아시히 신문은 이날 이명박 정부에서의 남북 관계가 경색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햇볕정책의 창시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이자 측근이 나선 선거전과 선거 결과에 따른 영향 등을 집중 조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달에는 일본의 동경 신문과 미국의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지도 목포와 무안·신안의 선거전을 취재했다.

박지원 후보 측 관계자는 "아사히 신문이 이명박 정권에서 햇볕정책 폐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과 핵심 측근의 선거전을 취재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거 당일에도 일부 외신들이 목포와 무안·신안을 찾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는 지난주말에 이어 4일 또다시 무안·신안과 목포를 방문, 무소속 김홍업, 박지원 후보 지지를 호소할 방침이다.

이희호 여사는 향후 선거 당일까지 무안·신안과 목포를 넘나들며 지원 유세를 벌일 예정이어서 막판 DJ 바람은 양 지역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 동교동계의 맏형인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도 지난 1일에 이어 조만간 막판 무안·신안지역을 다시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한나라당 동작을 정몽준 후보가 3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여기자 성희롱 논란과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에 둘러싸여 당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군소정당, '1인2표제' 눈독

비례대표 확보 기대…'후보는 무소속, 당은 ○○○' 홍보

유권자 1명이 투표소에서 2장의 투표지를 받아 지지후보와 지지정당을 따로 선택하는 '1인2표제'가 군소정당과 무소속 후보에게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했다.

개별 후보들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군소정당의 경우 '지지후보는 정했지만, 지지정당은 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을 잘만 활용하면 비례대표 의원 수를 대폭 늘려 당의 세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이름도 생소한 군소정당이 부쩍 늘어난 데다 일부 군소정당이 제1, 2당 만큼이나 많은 지역구 후보자를 낸 것도 이 같은 점을 적극 활용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지난 17대 총선의 경우 지역구 당선자가 2명에 그쳤던 민노당 정당득표율은 13%를 넘어 비례대표 8석을 추가로 확보, 최대 수혜자로 등장하는 이변이 나타났다.

당시 접전을 펼쳤던 민주당은 지역구 당선자가 5명이었지만 정당득표율을 7.1%에 그쳐 비례대표 의석은 4석밖에 얻지 못했었다.

이와 함께 광주·전남처럼 특정 정당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곳에 출마한 무소속 후보들도 '사람은 무소속을 찍더라도, 정당은 원래 선호하는 곳을 찍을 수 있는' 이 제도가 민주당 소속이 아닌 후보를 선택하려는 유권자들의 심적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광주·전남 20개 지역구에 출마한 대다수 무소속 후보 홍보 플래카드에 '후보는 무소속, 당은 ○○○'이라는 문구가 들어있는 점도 이 같은 사실을 입증해준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광주·전남 부재자 투표 순조

총 7만429명…오늘 오후 4시까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부재자 투표가 3일 광주·전남지역 49개 부재자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돼 4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총선의 부재자 투표 대상자는 광주 2만6천411명과 전남 4만4천15명을 포함, 모두 82만5천658명으로 전체 선거인수 3천780만6천296명의 2.2%이다. 군인과 경찰공무원이 60만5천874명으로 전체의 73.4%를 차지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3일 오후까지 별다른 사고 없이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부재자 투표 대상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자신의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선관위 및 구·시·군청 사무실 등에 설치된 부재자 투표소를 찾아 투표하면 된다.

거소투표를 신고한 사람은 자택 등에서 볼펜 등으로 기표한 후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9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정몽준 의원 '여기자 성희롱' 사과

野 "후보사퇴 촉구" 정치 쟁점화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이 유세 현장에서 취재 중이던 여기자의 볼을 건드린 것으로 알려진 것을 두고 성희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오후 사당3동 거리유세 현장에서 MBC 보도국의 김 모 기자가 뉴타운 공약에 대한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정 의원이 김 기자의 뺨을 건드린 사건이 발생, 의도적이었는지, 실수였는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 최고위원은 이에 3일 오전 문제의 김모 기자의 어깨를 툭 치려던 것이 본의 아니게 뺨에 닿았을 뿐이라고 해명했으나, MBC노조와 기자회는 문제의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분석한 결과 거짓 해명임이 드러났다며 정몽준 후보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야권은 명백한 성희롱 사건으로 규정, 정 의원의 후보 사퇴 등을 촉구하며 정치쟁점화를 시도했다.

민주당 김재두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온 나라가 연일 아동 납치 사건, 성범죄 사건으로 들썩이고 있는데 이 무슨 추태인가"며 "한나라당은 성폭력 집단이라는 누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즉각 정 후보를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자료를 통해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며 진화에 나섰다. 그는 "아내와 함께 지지자들에 밀리면서 움직이던 중 처음 보는 여기자가 갑자기 큰 소리로 뉴타운 사업 관련 질문을 했고 '여기서 그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며 왼팔로 해당 여기자의 어깨를 툭 치는 순간 본이 아니게 얼굴에 손이 닿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경위야 어떻든 해당 여기자가 이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면 심심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정 후보는 또 이날 오후 MBC를 전격 방문, 김 기자를 만나 공식 사과했다.

한편,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정몽준 후보 사무실 앞에서 정 후보의 '여기자 성희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전국여성연대 윤금순 상임대표와 손미희 집행위원 등 이 단체 회원 4명이 경찰에 의해 선거법 위반으로 연행돼 파문이 확산할 조짐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합격률 전국 1위 =
공인중개사 오전반 야간반
4월 첫진도 시작반
수강료 50%
환급과정
♣ 현대적 학습시설
♣ 첨단학습보조 시스템
♣ 과학적 평가시스템
♣ 창업 및 취업 센터 운영
전남고시학원 (전남여고 건너편) 236-2467~8
고객무료전화 080-0236-2468

새롬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서구점 ☎361-8111
북구점 ☎529-8111
개강 매월초
합격
국비무료
새롬 행정고시학원

교사임용시험?
곽내영교육학
교육학 초등교육 유아교육
http://www.naeyoung.com
에듀뮤빗
곽내영고시학원 (062)529-0090